

우라시마 다로오와 이상한 상자

글·이상교 그림·박지혜





모야모와 아누는 아침부터 무척 들떠 있었어. 바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게 되었거든.
사방이 바다인 섬나라 일본에 와서 바다 구경을 안 할 수 없잖아.
물안경을 쓰고 산소 통을 멘 모야모와 아누는 바다 깊숙이 잠수했어.
그런데 바다 속에서 팔을 날쌔게 휘두르며 헤엄을 치는 큰 거북을 만났지 뭐야.

얘들아, 안녕!
난 용궁에 사는
90살 된 거북이야.

와, 그 어부를
만나게 해 줘요.

자,
출발, 출발!

내가 바다 속을
구경시켜 줄게. 자, 타렴!
옛날 우리 일본에 너희들처럼
거북 등을 타고 용궁에 간
어부가 있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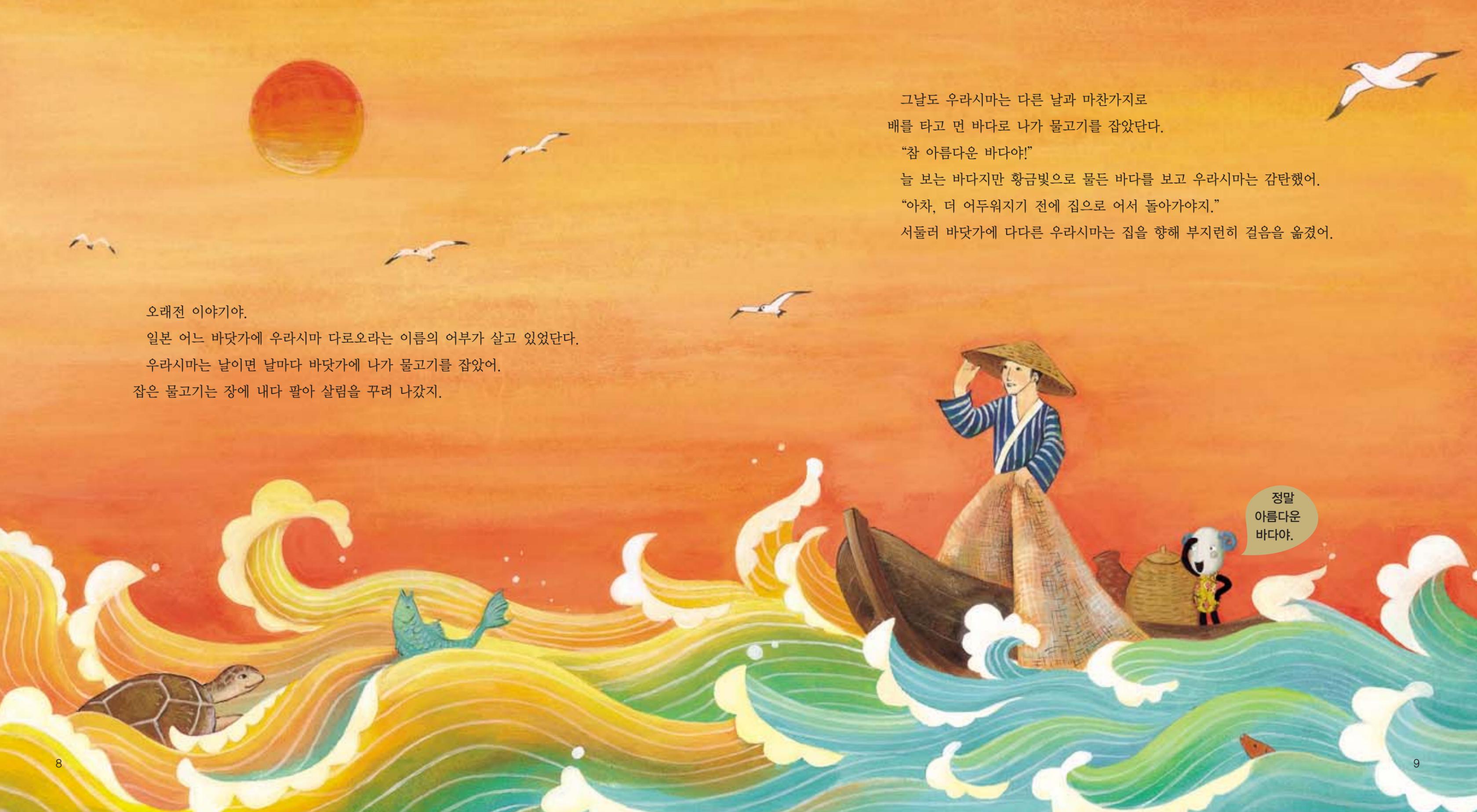


우라시마 다로오와 이상한 상자

글·이상교 그림·박지혜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는(은)

모야모, 아누와 함께 일본에서 마음씨 착한 어부 우라시마 다로오를 만나게 될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야.

일본 어느 바닷가에 우라시마 다로오라는 이름의 어부가 살고 있었단다.

우라시마는 날이면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어.

잡은 물고기는 장에 내다 팔아 살림을 꾸려 나갔지.

그날도 우라시마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단다.

“참 아름다운 바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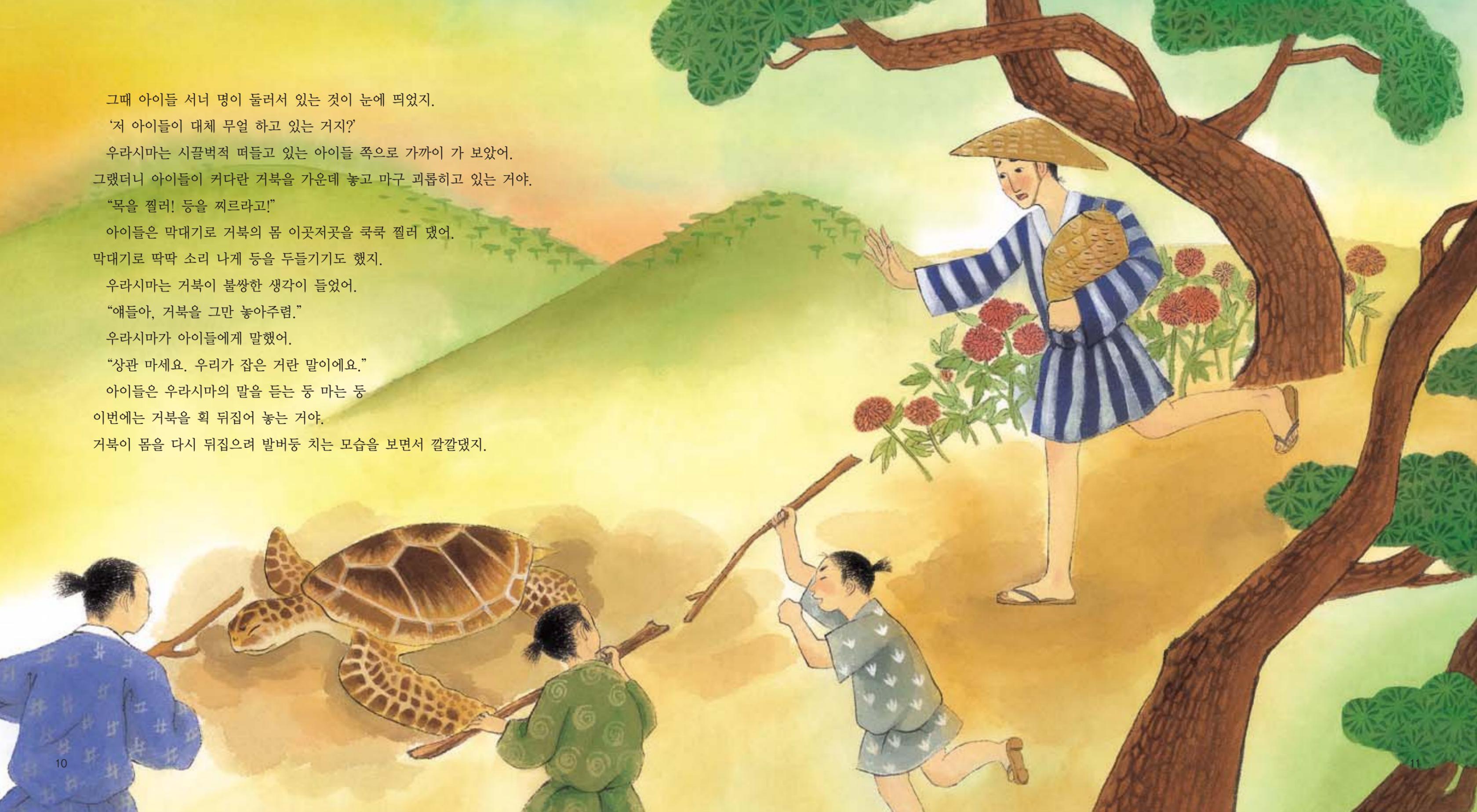
늘 보는 바다지만 황금빛으로 물든 바다를 보고 우라시마는 감탄했어.

“아차, 더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어서 돌아가야지.”

서둘러 바닷가에 다다른 우라시마는 집을 향해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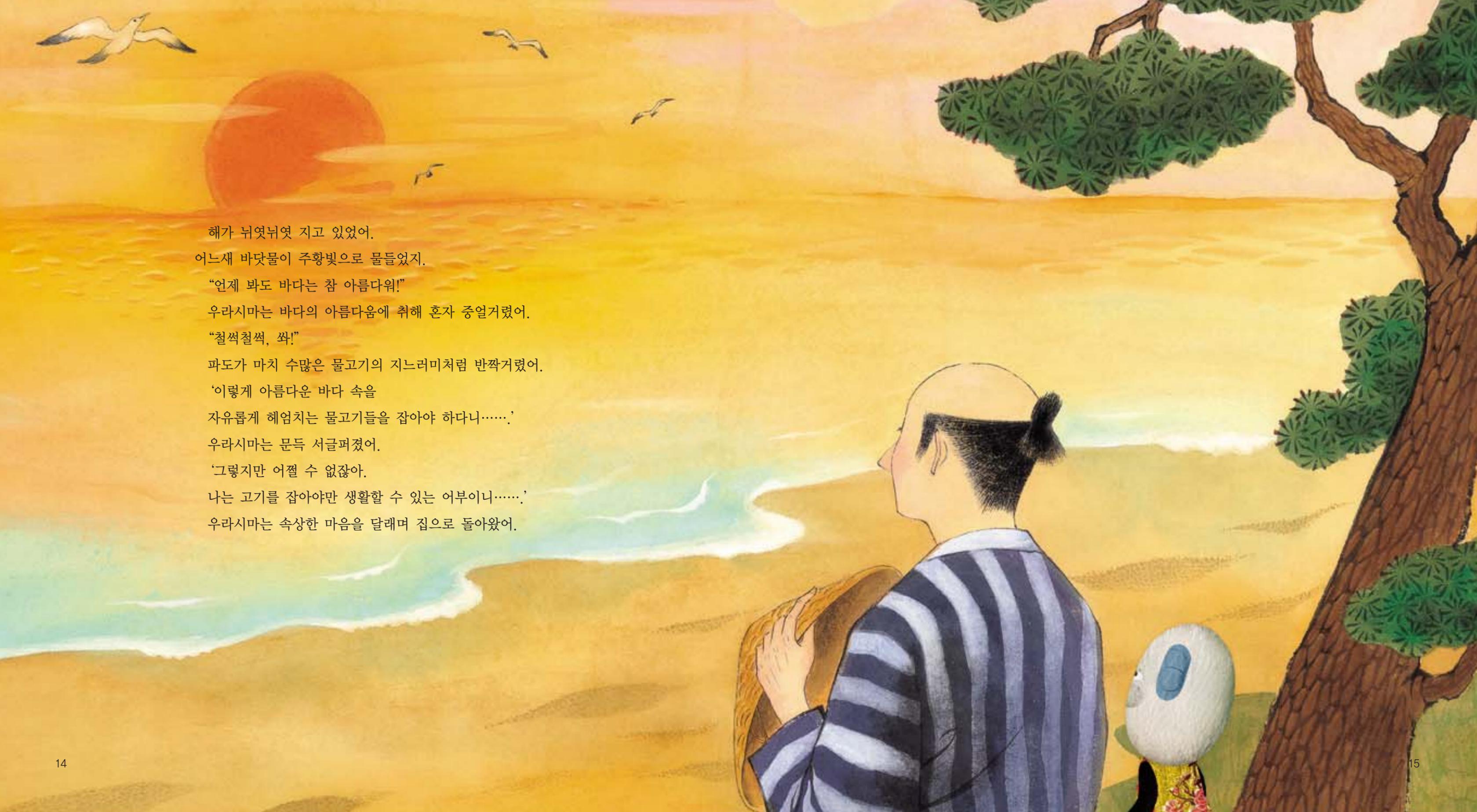
정말
아름다운
바다야.

그때 아이들 서너 명이 둘러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지.
‘저 아이들이 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거지?’
우라시마는 시끌벅적 떠들고 있는 아이들 쪽으로 가까이 가 보았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커다란 거북을 가운데 놓고 마구 괴롭히고 있는 거야.
“목을 찢러! 등을 찌르라고!”
아이들은 막대기로 거북의 몸 이곳저곳을 쿡쿡 찢러 댔어.
막대기로 딱딱 소리 나게 등을 두들기기도 했지.
우라시마는 거북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
“애들아, 거북을 그만 놓아주렴.”
우라시마가 아이들에게 말했어.
“상관 마세요. 우리가 잡은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우라시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이번에는 거북을 획 뒤집어 놓는 거야.
거북이 몸을 다시 뒤집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깔깔댔지.





“얘들아, 그러면 그 거북을 내게 파는 게 어떻겠니?”
생각다 못한 우라시마가 제안했어.
그냥 두면 거북이 죽을 것 같았거든.
“팔라고요?”
“아니, 더 가지고 놀 거예요.”
그러자 대장인 듯한 아이가 나서며 대꾸했어.
“실컷 골려 주었으니 파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해서 우라시마는 아이들에게서 거북을 구해 주었지.
우라시마는 곧 거북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어.
“다시는 육지 가까이로 오지 말고 너른 바다에서 잘 지내렴.”
우라시마는 거북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어.
거북은 마치 인사라도 하듯이 몇 번이고 돌아보며 바다 속으로 사라졌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
어느새 바닷물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지.
“언제 봐도 바다는 참 아름다워!”
우라시마는 바다의 아름다움에 취해 혼자 중얼거렸어.
“철썩철썩, 썩!”
파도가 마치 수많은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반짝거렸어.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잡아야 하다니…….’
우라시마는 문득 서글퍼졌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나는 고기를 잡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어부이니…….’
우라시마는 속상한 마음을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어.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지?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
우라시마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고깃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지.
바다 물결은 마치 햇살로 된 돛을 단 듯 반짝였어.
우라시마는 맑은 바닷물에 그물을 늘어뜨리고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어.
그때였어.

“우라시마 님, 우라시마 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우라시마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는데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어.
“우라시마 님, 우라시마 님!”
소리가 들린 뱃전* 쪽을 찬찬히 살펴보니
거북 한 마리가 머리를 쳐들고 우라시마를 쳐다보고 있었단다.

*뱃전 : 배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

A colorful illustration of a man in a straw hat and a turtle in the ocean. The man is on the right, looking towards the left. The turtle is on the left, looking towards the right. The background is a light blue sea with white clouds and bubbles.

“나를 부른 것이 거북, 너였니?”

우라시마는 거북에게 물었어.

“네, 지난번에는 정말 고맙습니다.”

거북은 얼마 전 우라시마가 아이들로부터 구해 준 바로 그 거북이었어.

“오, 전의 그 거북이로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지?”

“목숨을 구해 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거북은 공손하게 대답했어.

“그런 일로 일부러 나를 찾아오다니.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라시마는 거북이 무척이나 기특했어.

“우라시마 님! 혹시 용궁 구경해 보셨어요?”

“용궁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깊은 바다 속에 있다는 그곳엔 내가 어떻게 가 봤겠니?”

우라시마는 심드렁하게 대답했어.

“괜찮으시다면 우라시마 님을 용궁으로 모셔 가려고요.”

“뭐, 용궁?”

“사실 저는 용궁에 사는 용녀의 시녀랍니다.

우라시마 님이 저를 구해 주신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용녀님께서 모셔 오라고 하셨답니다.”

“가 보고 싶긴 하지만 그 깊은 용궁에 무슨 수로 가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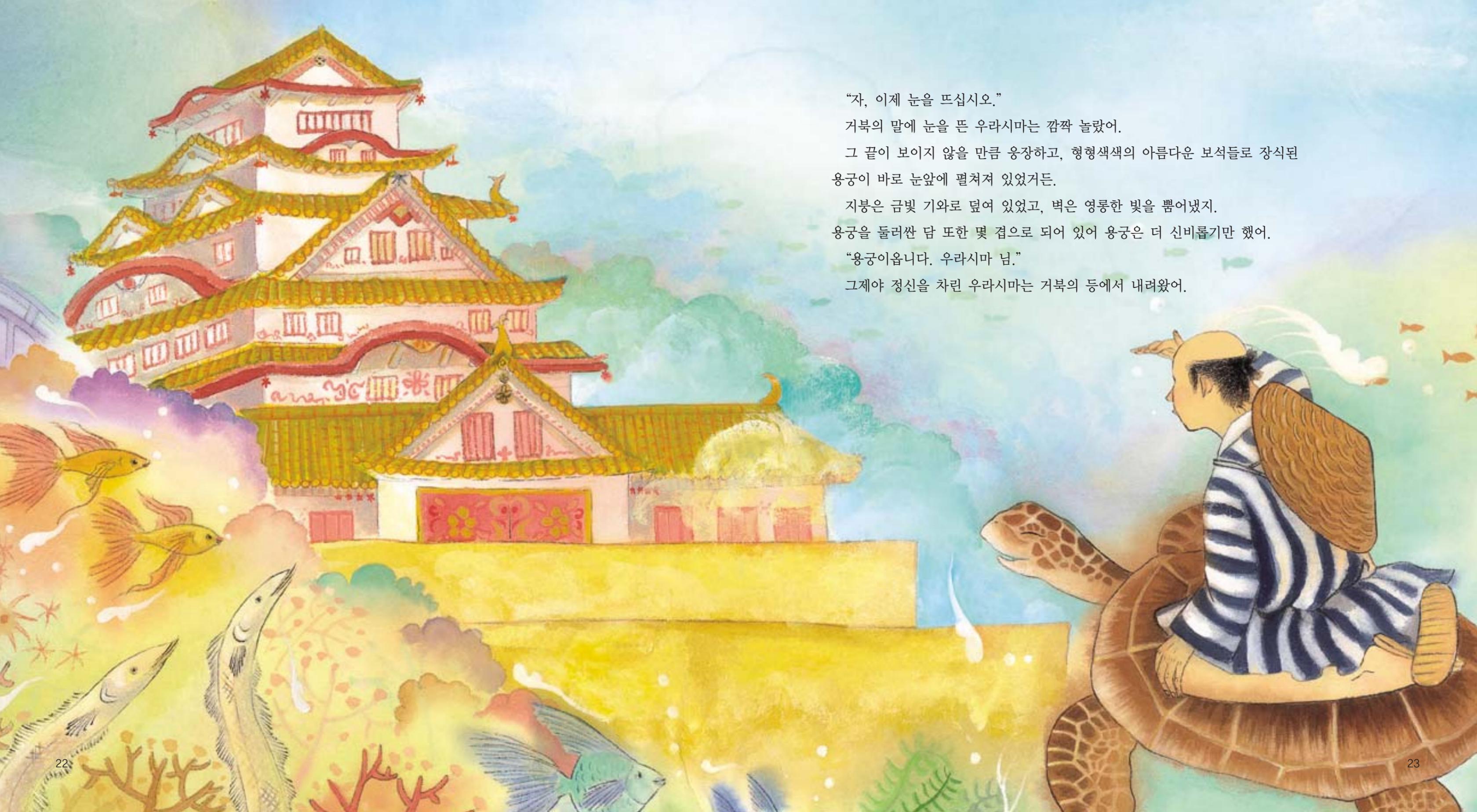
우라시마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물었어.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요.”



말을 마친 거북은 우라시마 앞에 널따란 등을 내밀었어.
“나보고 네 등에 타라고?”
우라시마는 잠깐 망설이다 거북의 등에 올라탔어.
거북은 천천히 헤엄쳐 나가기 시작했지.
바람이 불지 않아 바다는 잔잔했단다.
맑은 하늘 위로는 갈매기들이 한가롭게 날아다녔고,
“이제 바다 속으로 들어갈 테니 눈을 꼭 감으십시오.”
우라시마는 거북이 하라는 대로 두 눈을 질끈 감았지.
“짜짜.”
파도치는 소리가 귓가를 스치더니 곧 멀어졌어.
우라시마는 마치 꿈을 꾸는 듯했지.

아누야, 우리도
거북 따라 용궁에
가 보자.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거북의 말에 눈을 뜬 우라시마는 깜짝 놀랐어.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웅장하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보석들로 장식된 용궁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

지붕은 금빛 기와로 덮여 있었고, 벽은 영롱한 빛을 뿜어냈지.

용궁을 둘러싼 담 또한 몇 겹으로 되어 있어 용궁은 더 신비롭기만 했어.

“용궁이옵니다. 우라시마 님.”

그제야 정신을 차린 우라시마는 거북의 등에서 내려왔어.



“이곳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거북은 수정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대문으로 들어갔다 다시 돌아왔어.

“자, 안으로 드시지요.”

우라시마는 거북이 이끄는 대로 안으로 들어갔지.

“이쪽으로 오십시오. 용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궁 안으로 들어서자 용녀의 시녀인 가자미, 넙치, 도미가 달려 나와 지느러미를 펴리며 반갑게 맞아 주었지.

우라시마는 가자미를 따라 보석이 박혀 있는 화려한 복도를 걸어갔어.

“흠, 정말 대단하군!”

용궁의 천장은 수만 개의 진주로, 창문은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었고, 기둥은 산호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리 들어오십시오.”

마침내 우라시마는 향긋한 냄새가 풍기는 아늑한 곳으로 들어갔어.

“우라시마 다투오 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거북을 살려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용녀가 고운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

용녀는 목소리만큼이나 모습 또한 무척 아름다웠어.

살결은 백옥처럼 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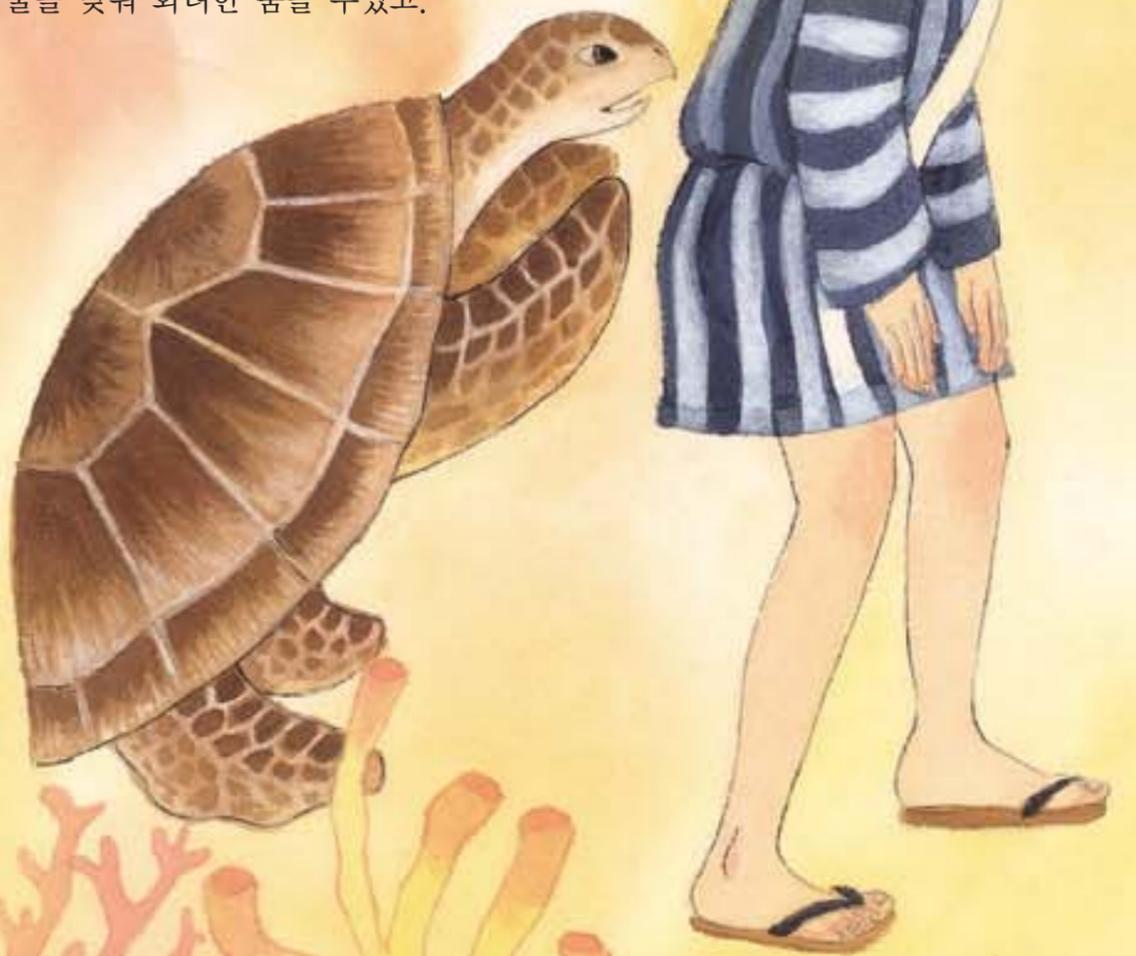
머리카락은 미역 줄기처럼 윤기 있고 탄력 있어 보였지.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라시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주 인사했어.

그러는 동안, 고래와 상어가 커다란 음식상을 들고 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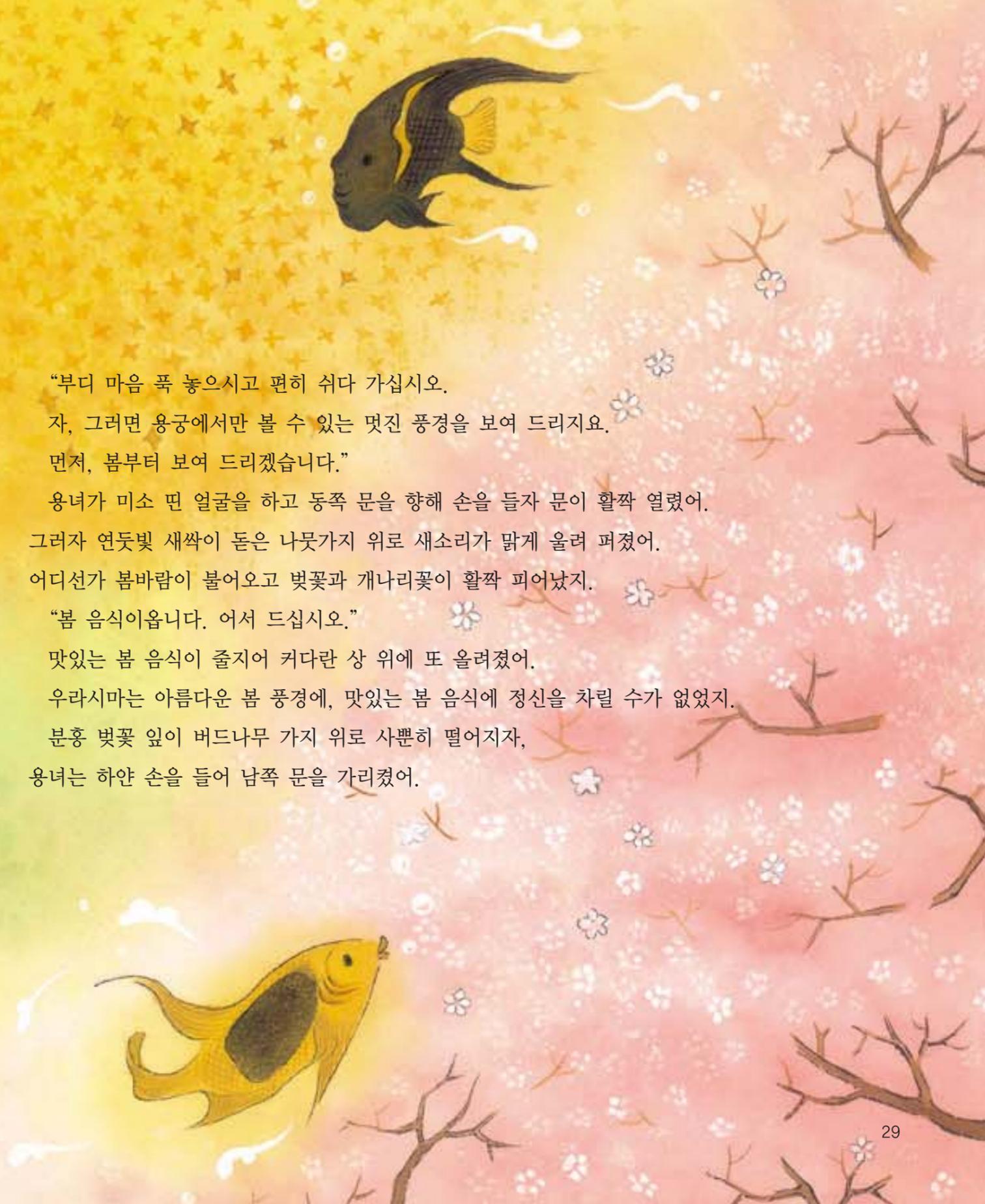
가다랑어와 문어는 줄을 맞춰 화려한 춤을 추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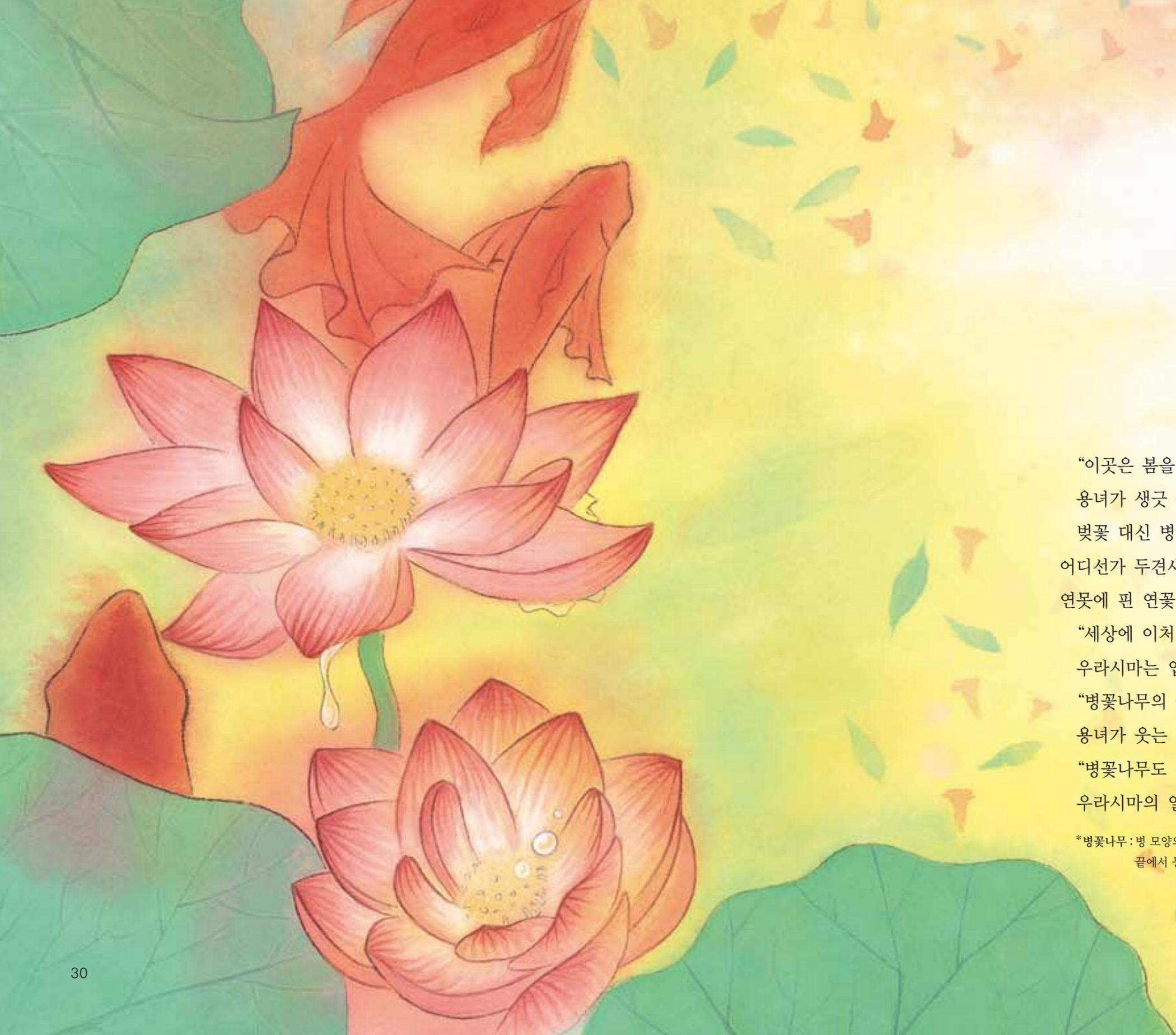




우아! 바다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봄이……!

“부디 마음 폭 놓으시고 편히 쉬다 가십시오.
자, 그러면 용궁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을 보여 드리지요.
먼저, 봄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용녀가 미소 띤 얼굴을 하고 동쪽 문을 향해 손을 들자 문이 활짝 열렸어.
그러자 연듯빛 새싹이 돋은 나뭇가지 위로 새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어.
어디선가 봄바람이 불어오고 벚꽃과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났지.
“봄 음식이옵니다. 어서 드십시오.”
맛있는 봄 음식이 줄지어 커다란 상 위에 또 올려졌어.
우라시마는 아름다운 봄 풍경에, 맛있는 봄 음식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
분홍 벚꽃 잎이 버드나무 가지 위로 사뿐히 떨어지자,
용녀는 하얀 손을 들어 남쪽 문을 가리켰어.





“이곳은 봄을 지나 여름입니다.”
용녀가 생긋 웃으며 말했어.
벚꽃 대신 병꽃나무*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어.
어디선가 두견새 우는 소리와 빠꾸기 소리가 들렸지.
연못에 핀 연꽃 앞에는 수정 같은 이슬이 때구루루 굴렀고,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우라시마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
“병꽃나무의 꽃으로는 선녀들의 여름옷을 만들지요.”
용녀가 웃는 얼굴로 말했어.
“병꽃나무도 아름답지만 용녀님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우라시마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났어.

*병꽃나무: 병 모양의 꽃이 피는 나무. 이른 여름에 병 모양의 누런 초록색 꽃이 가지 끝에서 뭉쳐 피는데 후에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번에는 서쪽 문을 열까요?”
용녀가 손으로 가리키자 이번에도 서쪽 문이 저절로 열렸어.
“가을이군요!”
그곳에는 셋노란 국화꽃과 하얀 국화꽃이 가득 피어 있었어.
정원의 나무들은 노랗고 빨갱게 물들어 있었지.

문이 열릴 때마다 바뀌는 풍경에
우라시마는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
계절이 변할 때마다 상 위의 음식도 달라져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과일과 음식들이 그득그득 쌓였지.
우라시마는 용녀와 나란히 앉아 가을 경치를 음미했어.



“대단하군요!”

우라시마는 용녀가 다스리는 용궁을 칭찬했어.

그러자 용녀가 말했단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잠깐 사이에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는 북쪽으로 나 있는 문을 열자 온통 하얀 눈 세상이었어.

거위 깃털처럼 하얀 눈이 쉬지 않고 내려왔지.

“나뭇가지에 탐스러운 은빛 꽃이 피어난 것 같군요.”

우라시마는 놀란 얼굴로 말했어.

크고 작은 바위가 얼음 옷으로 갈아입은 듯 반짝였지.

바람이 썩썩 세차게 불었지만 그렇게 춥지는 않았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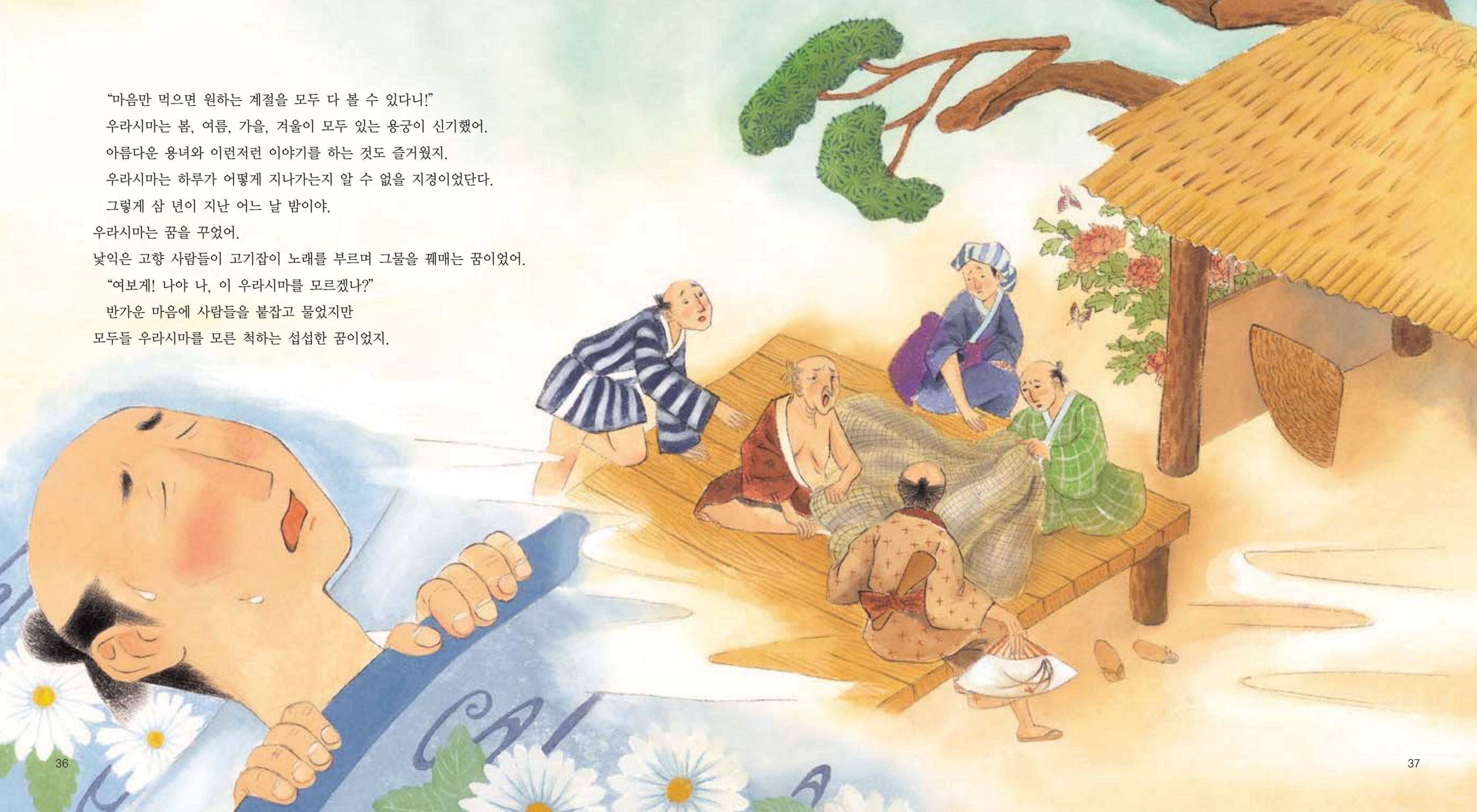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계절을 모두 다 볼 수 있다니!”
우라시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있는 용궁이 신기했어.
아름다운 용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즐거웠지.
우라시마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단다.
그렇게 삼 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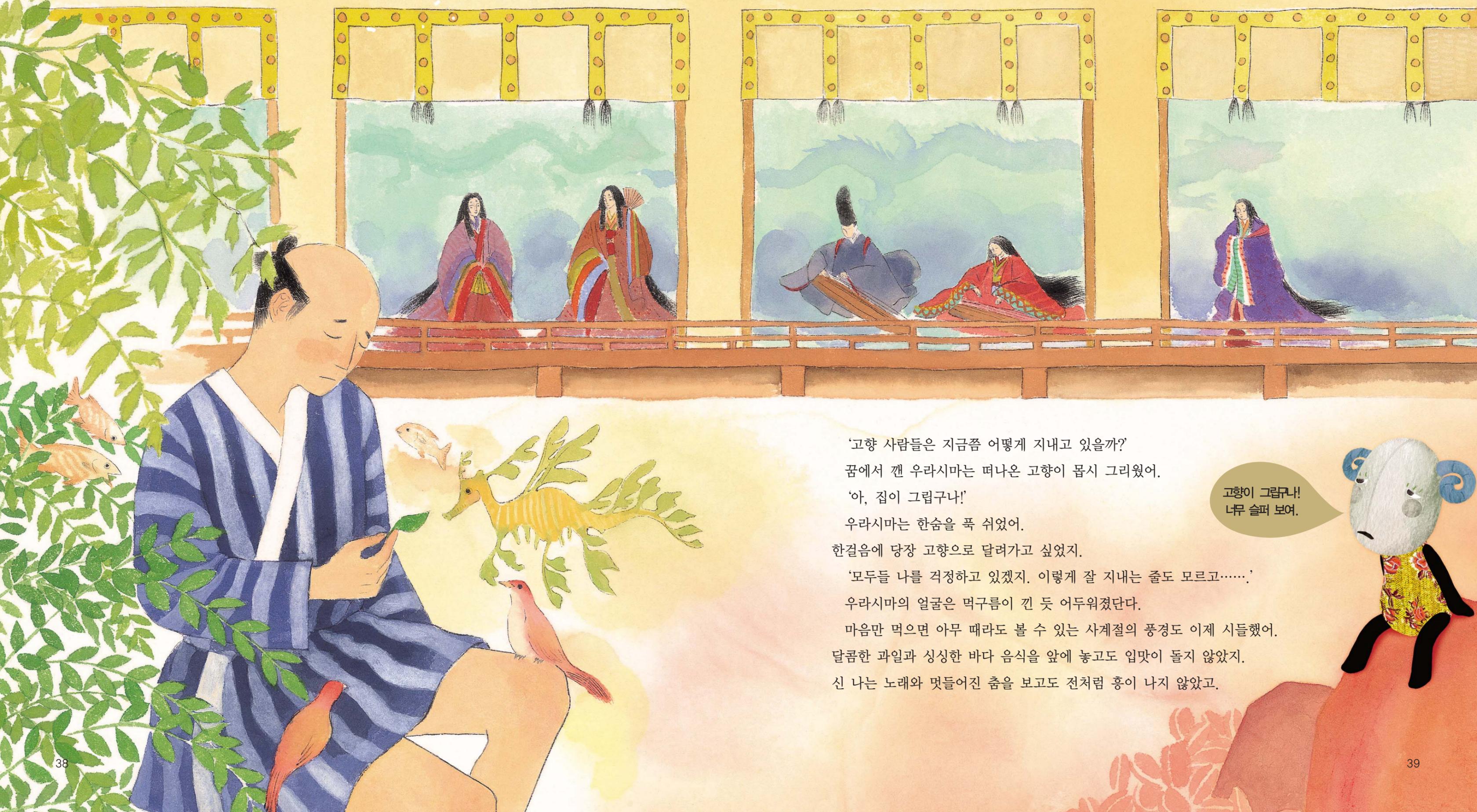
우라시마는 꿈을 꾸었어.

낮익은 고향 사람들이 고기잡이 노래를 부르며 그물을 쫓는 꿈이었어.

“여보게! 나야 나, 이 우라시마를 모르겠나?”

반가운 마음에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지만
모두들 우라시마를 모른 척하는 섭섭한 꿈이었지.





‘고향 사람들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꿈에서 깬 우라시마는 떠나온 고향이 몹시 그리웠어.
‘아, 집이 그리구나!’
우라시마는 한숨을 푹 쉬었어.
한걸음에 당장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었지.
‘모두들 나를 걱정하고 있겠지. 이렇게 잘 지내는 줄도 모르고…….’
우라시마의 얼굴은 먹구름이 낀 듯 어두워졌단다.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라도 볼 수 있는 사계절의 풍경도 이제 시들했어.
달콤한 과일과 싱싱한 바다 음식을 앞에 놓고도 입맛이 돌지 않았지.
신 나는 노래와 멋들어진 춤을 보고도 전처럼 흥이 나지 않았고.

고향이 그리구나!
너무 슬퍼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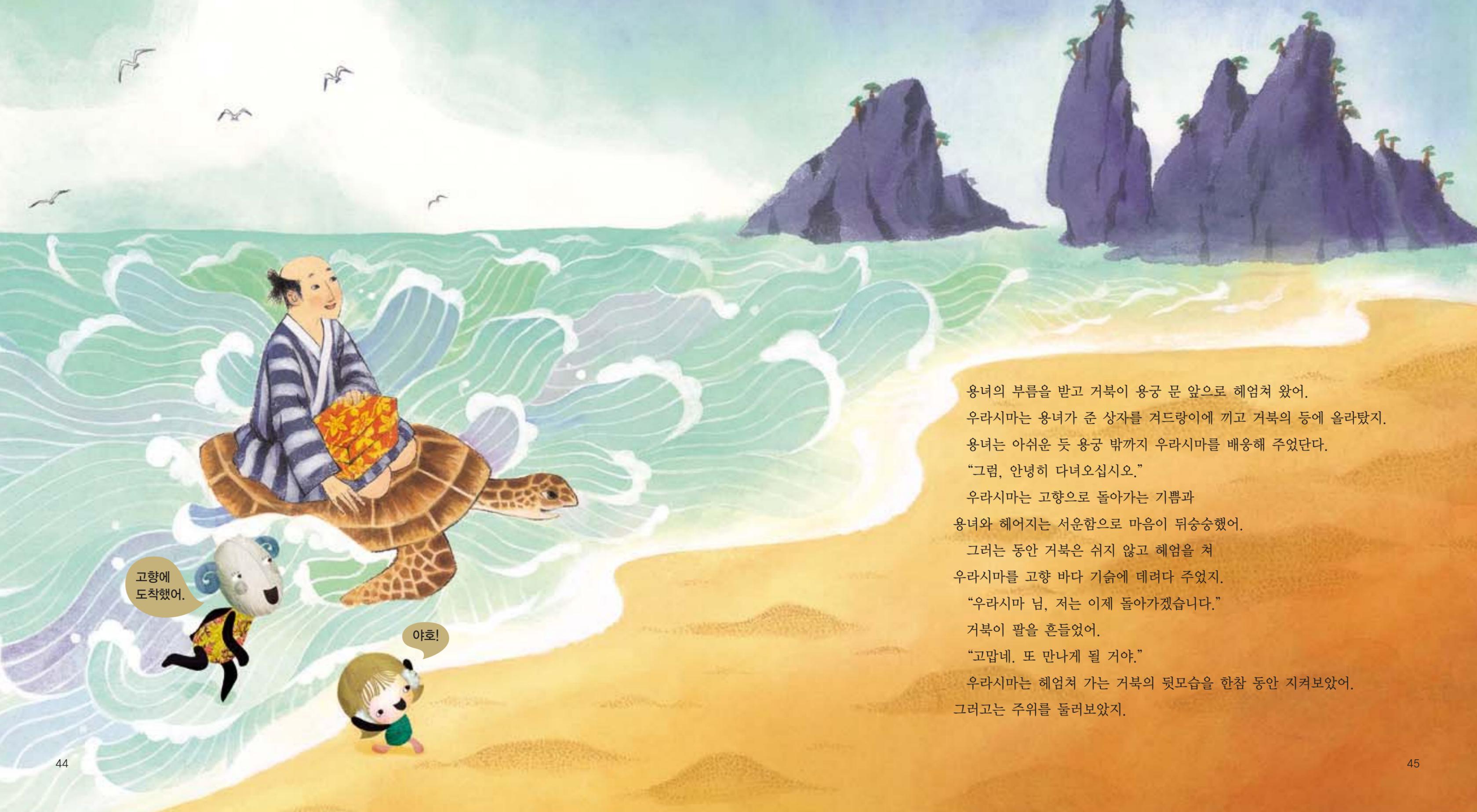




그런 우라시마를 본 용녀는 걱정이 되었어.
“우라시마 님,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으신지요?”
우라시마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
“실은……고향이 너무 그리워서요.”
“아, 그러셨군요!”
용녀는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
“이곳에 계시는 동안 고향은 까맣게 잊으신 줄 알았는데…….”
우라시마는 용녀에게 미안했지만 제 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을 마친 용녀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안 있어 화려한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어.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별이라니 섭섭하군요.
이별의 표시로 이 상자를 드리니 부디 가지고 가세요.”
용녀의 말에 우라시마는 상자를 받아 들었어.
그러자 용녀가 이어서 말했어.
“이 상자 안에는 인간에게 무척 소중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용궁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이 상자를 절대 열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용녀는 같은 말로 몇 번이나 다짐을 두었어.
“잘 알았습니다.”
우라시마는 상자를 품에 소중하게 안아 들고는 대답했어.
“고향 사람들 얼굴만 잠깐 보고 용녀님을 만나러 꼭 다시 오겠습니다.”
우라시마와 용녀는 다시 만날 약속으로 손을 마주 잡았지.



고향에
도착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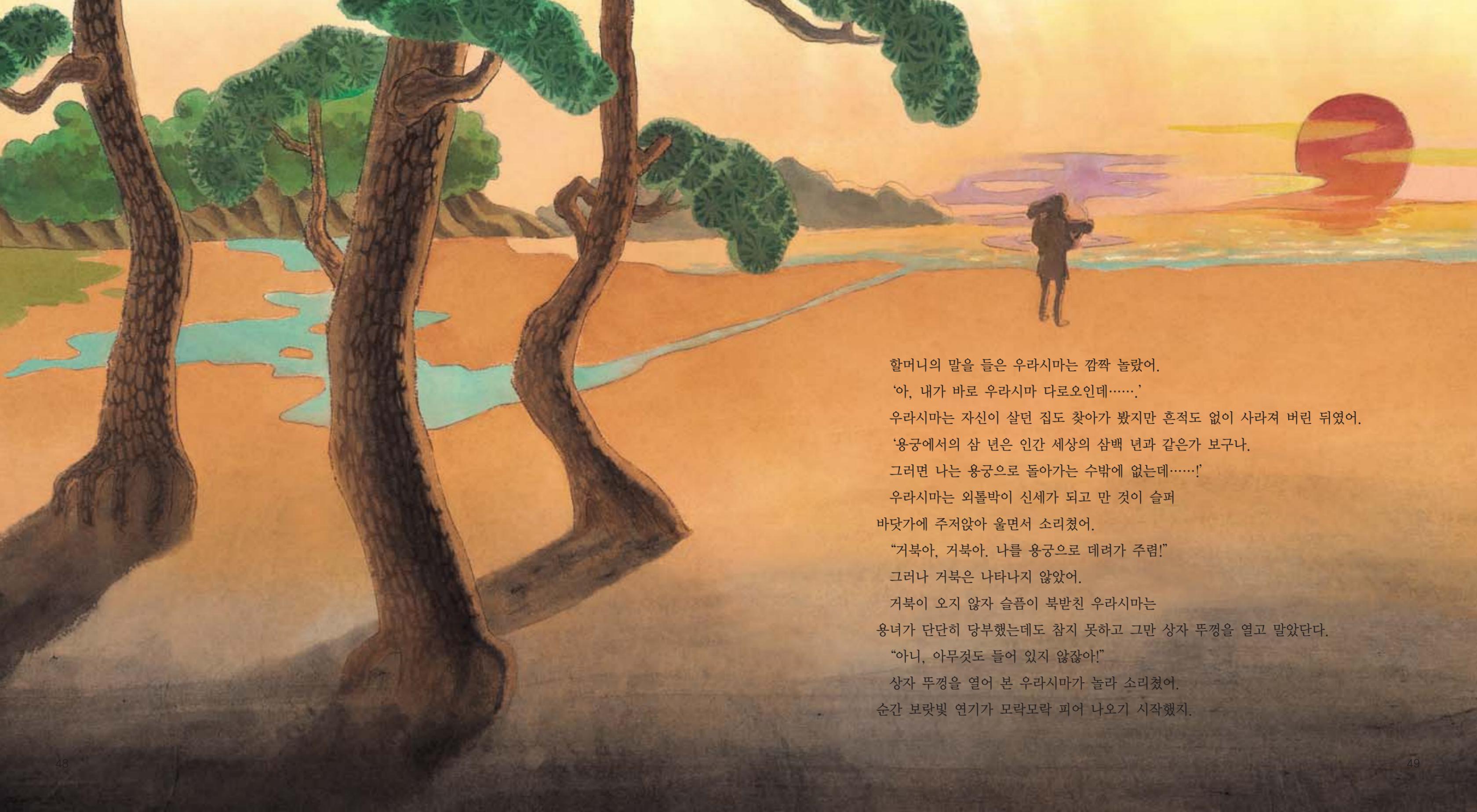
야호!

용녀의 부름을 받고 거북이 용궁 문 앞으로 헤엄쳐 왔어.
우라시마는 용녀가 준 상자를 겨드랑이에 끼고 거북의 등에 올라탔지.
용녀는 아쉬운 듯 용궁 밖까지 우라시마를 배웅해 주었다.
“그럼,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우라시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용녀와 헤어지는 서운함으로 마음이 뒤숭숭했어.
그러는 동안 거북은 쉬지 않고 헤엄을 쳐
우라시마를 고향 바다 기슭에 데려다 주었지.
“우라시마 님,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거북이 팔을 흔들었어.
“고맙네. 또 만나게 될 거야.”
우라시마는 헤엄쳐 가는 거북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어.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았지.

‘어……, 이상한걸!’
 그런데 길도 많이 다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이상했어.
 사람들도 우라시마를 이상한 듯 흘깃흘깃 쳐다보았지.
 “삼 년 만에 마을과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다니!”
 우라시마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어.
 그때 머리가 하얗게 쉰 할머니와 마주치게 되었어.
 난생처음 보는 할머니였지.
 우라시마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어보았어.
 “혹시, 우라시마 다로오라는 사람을 아시는지요?”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라시마를 바라보며 대답했지.
 “우라시마 다로오? 그런 이름은 들어 본 적이 없는데…….”
 “들어 보신 적이 없다고요?”
 우라시마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할머니가 한 말을 되뇌었지.
 “아아, 우라시마 다로오! 그 사람이라면
 삼백 년 전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들은 기억이 나는구먼.
 용궁에 갔을지도 모른다고들 했지.”

정말 이상해.
 우라시마를
 왜 못 알아볼까?





할머니의 말을 들은 우라시마는 깜짝 놀랐어.
‘아, 내가 바로 우라시마 다로오인데…….’
우라시마는 자신이 살던 집도 찾아가 봤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뒤였어.
‘용궁에서의 삼 년은 인간 세상의 삼백 년과 같은가 보구나.
그러면 나는 용궁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우라시마는 외톨박이 신세가 되고 만 것이 슬퍼
바닷가에 주저앉아 울면서 소리쳤어.
“거북아, 거북아. 나를 용궁으로 데려가 주렴!”
그러나 거북은 나타나지 않았어.
거북이 오지 않자 슬픔이 북받친 우라시마는
용녀가 단단히 당부했는데도 참지 못하고 그만 상자 뚜껑을 열고 말았단다.
“아니,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잖아!”
상자 뚜껑을 열어 본 우라시마가 놀라 소리쳤어.
순간 보랏빛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 나오기 시작했지.



우라시마가
늙어 버렸어.



보랏빛 연기는 곧 우라시마의 온몸을 감쌌어.
 “아이고, 이게 무슨 연기람!”
 놀란 우라시마는 연기가 닿은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지.
 “앗!”
 그런데 우라시마의 얼굴은 주름살투성이 할아버지로 변해 있었어.
 얼굴뿐 아니라 손, 발, 온몸이 주름으로 가득했어.
 게다가 허리는 잔뜩 꼬부라져 있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희게 세어 길게 자라 있었지.
 우라시마는 그제야 펄쩍 정신을 차렸어.
 “용녀님이 이 상자에 인간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가둬 두었다고 하더니,
 그게 바로 인간의 나이를 뜻하는 거였구나!”
 우라시마는 용녀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상자를 열어 본 일을 무척 후회했어.
 하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지.
 “거북아, 거북아, 나를 용궁으로 다시 데려가 주렴!”
 우라시마는 힘들게 소리쳤지만 파도 소리만 철썹철썹 귀에 가득했단다.



글과 그림

글을 새로 쓴 이상교 선생님은

197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로 입선했고, 1977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었어요. 한국동화문학상, 해강아동문학상, 세종아동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을 받았어요. 작품으로는 〈롤러 블레이드를 타는 의사 선생님〉, 〈토끼 당번〉, 〈독도로 간 삽사리〉, 〈꽃이 된 엄마〉 등이 있고, 동시집으로는 〈나와 꼭 닮은 아이〉, 〈자전거 타는 내 그림자〉, 〈살아난다, 살아난다〉 등이 있어요.

그림을 그린 박지혜 선생님은

선화예술고등학교 미술부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에서 조소와 목조형가구학을 전공했어요. 2005년 11월에 동화 작가 99인전에 참여했어요. 그린 책으로는 〈세계의 원주민〉, 〈울산 바위〉, 〈석빙고〉, 〈라퐁첼〉, 〈좁쌀 한 톨로 장가간 총각〉, 〈라이트 형제〉 등이 있어요. 이 책의 그림은 일본 고유의 화려한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 장지에 동양화 물감을 사용하여 그렸어요.

모야모와 아누를 그린 김혜민 선생님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고, 지금은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쓰고 있어요. 그린 책으로는 〈종이 접기〉, 〈뽕날개가 돌았어요〉, 〈지붕 위의 의자〉, 〈안개〉 등 다수가 있어요. 모야모와 아누는 수채화 기법과 다양한 무늬의 종이, 잡지, 헝겊 등을 이용한 콜라주 기법을 써서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표현하였어요.

우라시마 다로오와 이상한 상자

발행처 | ㈜교원 :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258 대표전화 | 02-563-9090, 080-023-9091 등록번호 | 제300-1971-1호 발행인 | 이정자 편집 책임 | 박두이 글 | 이상교
그림 | 박지혜 기획·편집 | 윤미영, 김보인, 지미라 편집 디자인 | 여인희, 김유정, 김소정, 문지연 제작 | 문상화, 전승호, 김권식 재판 | 상현 프로세스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36-1 인쇄 | ㈜갑우문화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469 제본 | ㈜이우제책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47-1 인터넷 | <http://www.kyowon.co.kr> 1판 1쇄 인쇄일 | 2006년 10월 20일 1판 1쇄 발행일 | 2006년 10월 20일

©2006 Kyowon Co., Ltd.

〈모야모와 아누의 세계 옛이야기〉는 ㈜교원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는 내용이나 그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BN 89-21-42635-3 ISBN 89-21-00073-9(세트)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Printed in Korea

△ 주의 |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본 교재를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고온 다습한 장소나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는 보관을 피해 주십시오.





〈모야모와 아누의 세계 옛이야기〉는
우리 어린이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데
알찬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9788921 431103 74800
ISBN 89-21-43110-1
ISBN 89-21-00090-9(세트)